

## 공존을 위한 아시아공동체, 인식을 위한 단계들

아시아공동체론 강의는 국가의 틀이 무색해지는 현대사회에서 앞으로 아시아가 갈 수 있는 길의 한 방향을 제시한다. 작게는 국가 간의 교역이나 경제협력에서부터 최종적으로는 EU와 같은 높은 수준의 정치, 경제적 통합을 이루는 것일 수도 있다. 윤강 형식으로 이루어진 이 강의는 국내, 외의 여러 연구자, 실무자 등을 초빙하여 이루어졌다. 강연자 분들은 대부분 한국과 일본인이다. 이는 일본 재단 후원 하의 강의이기 때문이며 동남아나 인도 등 동아시아 지역을 벗어난 국적의 강연자가 없다는 것에 실망스러운 점이 없지 않아 있다. 하지만 아시아 공동체론의 시작은 동아시아 공동체부터 성공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느냐가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천천히 아시아 공동체를 향해 나아간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첫 번째 강의는 정준곤 원아시아재단 수석연구위원의 아시아 정치경제 환경의 변화와 아시아공동체라는 주제였다. 이 강의는 근대국민국가의 형성 과정에서 만들어진 심리적인 장벽을 뛰어넘어 국가와 국민의 개념에서 탈피한 새로운 공동체 형성에 대한 내용을 말했다. 아시아 공동체론에 대한 강의들 중 가장 직접적으로 공동체를 향해 가는 길을 제시했다. 하지만 현대 사회의 높은 개발도를 가진 국가들은 왕가나 귀족의 소유물로 취급하던 국가의 개념에서 국민에 의한 국가라는 공동체의 의식을 갖기 시작하며 성장한 국가들이기 때문에 국민과 국가의 개념을 탈피하기 위해선 긴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또한 저개발 국가들이 아시아 공동체에서 발전하는 과정 중에 앞선 국가들이 그러했듯 내셔널리즘, 국소 지역적 공동체 의식이 생긴다면 그들이 이를 벗어나는 시간 또한 충분히 주어져야 하므로 앞으로의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

두 번째 강의는 하용출 워싱턴대학 교수님의 한중일 안보협력에 대한 강의라는 주제였으나 실제 강연에서는 러시아의 아시아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중요성에 대해 말했다. 실제 시베리아 횡단열차 탑승기를 통해 블라디보스토크부터 예카테린부르크까지의 길목의 주요 거점마다 자연환경, 자원, 민족, 역사, 문화 등 방대한 내용을 설명했다. 앞으로 자원의 보고인 시베리아지역은 러시아와 한국, 일본, 중국 등이 공동 개발을 통해 성장할 수 있으며 이 지역의 거주민들과의 상생을 통해 아시아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주 내용이었다. 하지만 현재 러시아는 정치적인 신뢰도가 낮은 편이고 시베리아 지역에 별로 관심이 없는 듯하여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꽤 훗날의 일일 것 같다.

세 번째 강의는 아베 마코노 아시아경제연구소의 한일경제협력과 아시아공동체라는 주제였다. 여기서는 한일 경제 교류의 역사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았다. 일본은 한국의 경제 성장에 경제 원조를 통해 기여한 부분이 있으며 수직적 분업적 관계에서 현재는 수평적 분업이 되었고 앞으로 수평 분업의 발전을 통해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미래를 꿈꾸는 내용이었다.

네 번째 강의는 김종식 교수님의 한중일 역사와 문화에 대한 주제였다. 실제 강의는 일본이 아시아 식민지배와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원인을 알아보는 시간이었다. 일본의 군국화는 이것이 쉬운 정치체제, 메이지 유신으로 인한 근대화, 상품시장 등의 식민지의 필요성과 아시아 국가들의 식민지화를 본 일본이 이를 피하기 위해 제국주의를 걸었다는 것이었다. 일본의 제국주의는 동아시아 특색인 이미 갖춰진 높은 민족성으로 인한 높은 반란도, 한국, 만주 지역의 자원 부재, 중국의 많은 인구로 인해 성공하기 힘들었다. 스페인, 포르투갈의 중남미 식민지화는 그 지역 인구가 워낙 없었기 때문에 수월했고 영국의 인도 지배는 낮은 민족성을 지닌

인도의 특징과 여러 왕국을 분할되어 있던 상황으로 인해 나눠먹기가 가능했다는 것, 네덜란드의 인도네시아 지배는 무역 교류로부터 오랜 기간 잠식해 나갔다는 점에서 일본은 너무 급격하고 강제적인 방법을 사용했다. 인도차이나 반도 등 남만지역은 이미 열강들의 손에 들어가고 세계정세는 급격하게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성급히 움직여야 했을지 모른다. 일본의 태평양 전쟁은 어쩔 수 없었다기 보다는 처음부터 잘못된 방향으로 발전을 시도했던 점이 쌓이고 쌓여 폭발하고 패망했다고 생각한다.

여섯 번째 강의는 이애리아 교수님의 중앙아시아 내용이었다. 소련으로부터 풀려난 중앙아시아 5개국을 아프리카 국가들보다도 인지도가 없을 것이다. 이 국가들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발전가능성을 시사해 주는 강의였다. 중앙아시아는 역사적으로 이란, 페르시아 지방에 영향력을 계속 끼친 중요한 지역이다. 중세시대에는 유목민의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터키, 인도, 이란, 중동 지방의 정세 급변은 대부분 이 지역의 변화로 인한 연쇄작용이 많았다. 전통적으로는 이슬람 지방이면서도 러시아의 정교회 영향권에 놓이고 마지막으로 소련 공산주의의 무종교 영향으로 인해 이슬람 지방 중에서 가장 종교분쟁이 없을 듯한 나라이다. 아시아이면서도 이런 인지도가 낮은 생소한 지역에 대한 강연을 들었던 점이 괜찮았다.

일곱 번째 강의는 미야지마 히로시 교수님의 한중일 문화의 비교였다. 일본의 근대화를 유교적 측면에서 바라본 강연을 설명해 주었다. 늦은 시기까지 유교의 영향력이 약한 일본이 유교를 적극 수용하기 시작하면서 불교의 고려에서 유교의 조선으로 시대교체가 되듯이 일본의 근대화에 기여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유교는 시대교체의 원동력이 되었을지는 모르나 현대적 근대화에는 방해가 되는 점이 많아 배척당했다. 하지만 유교는 한중일 동아시아 지역의 공통된 가치관이라는 점에서 공동체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급격한 사회변화에서 유교를 현대에 맞게 수정할 시간이 없었던 것이지 유교의 현대적 적응을 이끌어 낸다면 한중일은 유교 문화권이라는 공동체 의식을 갖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중간고사 기간엔 한일경제협력 학술대회를 가졌다. 한일 경제에 관해 양국의 전문가들이 모여 얘기를 나누었는데 발언 시간 20분에 비해서는 준비하신 자료들이 너무 많아 대강대강 훑는 느낌이 있었다. 발언 시간이 늘어나거나 자료 축약이 이루어 졌으면 더 좋은 학술대회가 되었을 것이다.

여덟 번째 강의는 스미가와 마사히로 일본 Aflac 시니어 어드바이저 분의 일본경제의 현황과 아시아라는 주제였다. 주 주제는 버블경제의 붕괴로부터 나타난 일본 자본주의의 변화와 문제점들, 장기불황을 살펴보고 일본의 미래, 한국의 미래를 살펴보았다. 이 강의는 앞서 학술대회나 한일 경제협력 부분과 내용이 좀 겹쳐서 반복되는 느낌이 있었다.

아홉 번째 강의는 공커위 상해국제문제연구원의 부연구원 분의 중국과 한반도 국가들간의 관계에 대한 강연이었다. 중국의 관점에서 북한과 한국에 대한 관계를 들으니 단순히 휴전중인 적국 관계인 한국의 남북관계보다 복잡했다. 중국도 역시 한반도 관계의 악화보다는 서로 친선관계를 유지하면 한반도의 균형을 맞춰주는 것을 원하고 이를 통해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키우려고 한다.

열 번째 강의는 강태웅 광운대 교수님의 한중일 영화 교류에 대한 주제였다. 가벼운 내용의 주제가 나와서 무거운 분위기를 전환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다. 마지막 두 강의는 아주대학교 이왕희 교수님의 동아시아 지역생산네트워크와 박성빈 교수님의 한일금융협력에 관한 내용이었다.

마지막 강의는 원아시아 재단 이사장님의 아시아공동체를 향하여라는 주제였지만 시간상 전체적인 맥락을 훑기보다는 도입부만 하고 만 것 같아 아쉬웠다.